

## 육계농가, 생산성 저하 문제점은?

지난 3월 충남육계연합회 정기회의 석상에서 육계 생산성 저하문제가 1차적으로 거론되면 서 대다수의 육계농가에서는 출하율이 저조한 점에 대해 생산자들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지 들어보았다. 특히 전라남도와 충남 지역의 생산성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종수 논산지부장을 포함한 이희무 감사, 정운광 총무, 한채령 여사를 만나 논산 육계생산의 현 실태와 앞으로의 대책 방안 및 건의사항에 대해 들어보았다.



▲육계농장의 피해사례를 설명하는 이종수 논산육계지부장

### 저조한 육계 생산량의 현실

이종수 지부장은 1975년부터 양계업을 시작해 만 30년간 일생의 반을 양계와 함께 살아 온 현장 전문가이다. 종전에 비해 육계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한다. 총 100여개의 논산지역 육계농가 중 생산지수가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농장이 지난 2월 27일 S식품과 G농원에서 각 6천수, 2만 5백수로 총 26,500수를 입식하였고, 7일 만에 3,000수 가량이 폐사되어 육성율이 90%도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어느 농가는 5만 6천수 중 2만수에 가깝게 폐사가 되어 65%가량의 출하율을 보였고, 부여에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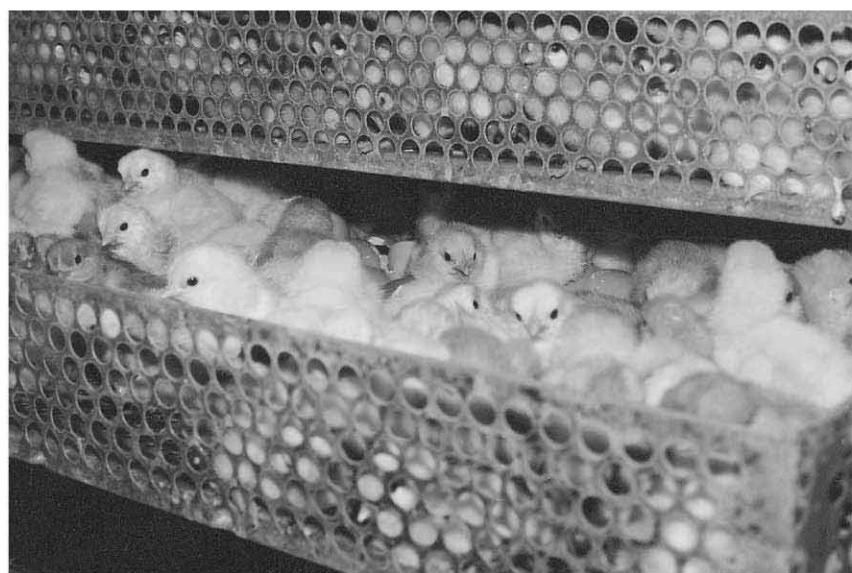
52%의 출하율을 보인 농장도 있었다. 충북 지역은 4만 7천수를 입식하고 1만 5천수를 출하해서 30%가량의 출하율을 보인 농가까지 가세하여 육계 생산성 저하문제가 각 지역에서 대두되고 있다.

## 병아리 탓으로만 돌려야 하나?

육계농가에서는 폐사율이 줄어들지 않는 현상을 부화장의 병아리 문제로 거론한다. 노계에서 생산된 병아리로 각종 질병에 노출되어 있어 입추된지 열흘 안팎으로 폐사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육계농가에서 말하는 바로는 종계노계를 도태되어야 하지만 부화장에서는 경제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환우 시킨 후 64주령이상 된 종계노계로부터 육용병아리를 생산한다고 추측한다. 예전의 경우 병아리 생산이 과포화 상태로 유지되어 가격이 50원, 100원 하던 시절에 종계노계에서는 저조한 산란율로 경제성이 떨어져 도태시기를 맞춰야했기 때문이다. 4월 12일 병아리 값이 수당 620원으로 호가를 누리다가도 4월 17일 현재 220원 이하에 거래될 정도로 육계업계가 불안하게 흘러가고 있다. 병아리 가격이 높게 유지될 당시에는

환우를 통해 주령이 지난 노계에서 40%이상의 산란율을 보이더라도 부화업계에서는 소득이 있다고 할 정도로 생산성과는 관계없이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즉 병아리 가격이 고가로 치솟으면 병아리 품질이 낮아져 육계농가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병아리 탓으로만 돌리기는 성급할 수도 있다. 타 계열사의 사료를 쓰는 농가는 이 업체가 사료 배합비를 바꾼 뒤로 농가의 생산성이 예전보다 나아진 농장도 있다고 밝힌다. 우기철에 건조를 시키거나 어분을 말리는 과정에서 잘못 건조시키다 보면 균의 증식이 증가해 사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에는 일주일 이내 병아리 폐사율이 높아지면 각 지방 시험소에서 판정을 받아 병아리에 문제가 있다는 결과를 받게 돼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서로의 정보를 공유해 발전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출하전후 초이사료를 먹임



으로써 각종 항생제, 영양제로 인해 일주일간 질병이 발견되지 않고 잠복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주일이 지나서 폐사율이 발생하면 농가의 관리허술로 판정되고, 현재는 10~15일 사이에 폐사율이 가장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난계대 질병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항생제가 없는 사료를 먹여야 함을 강조한다.

또 다른 관점에서는 육용실용계는 살모넬라균에 감염되어 생산성 저하시킬 우려 때문에 종계 티푸스 백신접종을 규제화 하고 있지만, 이럼에도 육용종계에도 음성적으로 티푸스 백신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인해 육계 질병 문제가 만연시 되고 있다고 말한다.

### 종계DB사업 구축 시급히 마련되길…

출하율 저하 문제는 요즘 들어서 나타난다고 말하기 보다는, 과거에도 이런 증상이 있었다. 하지만 계열화 사업의 시작으로 계열사에서 병아리를 받다보니, 병아리로 인한 질병 문제가 발생한다하더라도 육계사육농가는 묵인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피해를 보면서도 소득이 없으면 다음 입추시기에 충실한 병아리를 받기가 힘들게 되므로 실적이 안나오는 농장들은 은폐를 하게 된다. 하지만 폐사율이 극도로 심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연료값에 질병예방 접종비까지 부담하다보면 출하율이 낮을 때에는 육계사육농가가 불만을 토론하는 것이 사실이다. 계열사는 빠른 시간 내 양적·질적으로 성장한 반면, 생산농가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말한다. 이종수 지

부장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왔고, 삼십년간 양계업을 하는데 있어 정부의 방침대로 시행했음에도 결과적으로 생산성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것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했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종계DB사업 구축이 시급함으로 빠르게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한다. 이 사업으로 환우계·노계가 제 시기에 도태되기를 바란다. 지난 11월 여의도 항의집회에서 ‘양계장에서 닭을 키워야 할 사람들이 여의도 보도블럭에 앉아야겠냐…’는 언급을 통해 협회와 정부에 정책변화의 시급함을 알리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폐사율이 높은 원인에는 밀집사육방법으로 농가들이 사육환경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밀집사육은 한번 감염되면 수직·수평감염의 발병확률이 커지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이를 자제해야 할 것이다. 정부나 각 지자체에서는 양계농가의 보조사업을 확장키로 바란다고 말한다. 이는 현재까지 부족했던 양계인들의 단합력을 드높여 논산 지자체에 훈이나 안개분무 등의 보조사업을 앞으로 추진 할 것이라 밝혔다. 이종수 지부장은 30여년간 육계업을 하면서 앞으로 양계에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게 될 후배들에게 모범적인 모습으로 비춰지길 바란다고 한다.

현재 양계업을 후배에게 내주고 싶어도 젊은이들은 기피하기 마련이다. 앞으로 농촌의 현실적인 문제가 계획적으로 잡혀 정부대책마련이 되길 바란다.

취재 | 장성영 기자  
ch-spirow@hanmail.net

